

고려신용정보 (049720)

어둠의 금융주

채권추심업계 1위 사업자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계 1위 사업자로 25년 점유율은 약 20.4%에 달한다. 회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수수료 중심 수익구조로 1) 자기자본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운용수익을 확보하는 통상적인 금융회사보다는 2) GA와 유사하게 보유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플랫폼형 회사에 해당하며 영업비용 상당분이 성과와 연동되는 변동비용이라는 점에서 인력 기반 확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판단한다. 당사는 1) 업계 1위 사업자의 브랜드 파워, 2) 민/상사, 금융, 통신, 공공 등 전 채권 영역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3) 전국적 지점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다량의 연체채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급여를 수취하지 않는 채권 관리사에 있어 매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회사도 확보된 인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입, 영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력 확보와 영업력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물량 누적 이후 회수 개선 사이클 기대

통상적으로 고려신용정보는 경기가 부진할 때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수혜를 보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1) 경기 부진 시 동사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부실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과 2) 연체 발생 이후 추심까지 넘어오는 시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사의 수익구조가 수입한 채권의 회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본격적으로 부진하며 연체가 발생하는 시점보다 1) 연체 후 일정 시기가 지나 동사에게 추심 업무가 위임되고 2)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며 회수가 용이해지는 시점에 실질적인 수익과 이익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동사의 채권추심 실적을 살펴봤을 때도 금리가 상승하며 연체 등이 악화되기 시작한 22년이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한 23년~24년 중 탐라인 성장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레벨

당사는 1) 수익과 연동되는 비용 구조, 2) 브랜드 파워, 점유율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업종 내 가장 높은 효율성과 이익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주가는 26E 예상실적 기준 PER 9.7배, PBR 2.0배로 과거 5년 평균 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22년부터 금리 상승 등과 함께 경기가 둔화되며 NPL 증가 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상기 언급한 회수 어려움, 추심까지 넘어오는 시차 등 영향으로 실제 매출 증가 수준이 기대를 하회하며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 채권/재산권 강제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 기타집행 건수가 26년 4월 누계 기준 41만건(+8.2% YoY)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선행지수가 상승하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아진 물량과 회수율 개선에 기반한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채권추심 관련 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금융채권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민/상사채권 비중이 높은 동사에 대한 규제 강화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6E 실적은 영업수익 1,840억원(+3.3% YoY), 영업이익 176억원(+5.3% YoY)을 전망하며 영업이익률은 9.6%(+0.2%p YoY) 수준을 예상한다. 배당성향은 전년과 유사한 55%를 전망하며 배당수익률은 약 5.7%를 예상한다.

Company Brief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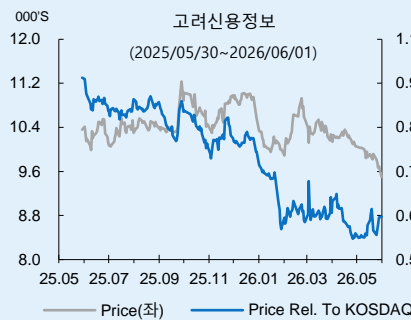
액면가 500원
증가(2026.06.01) 9,5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7십억원
발행주식수	1,430만주
시가총액	136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2%
52주 주가	9,500~11,230원
60일평균거래량	43,841주
60일평균거래대금	0.5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6	-10.0	-13.5	-8.3
상대수익률	6.4	2.0	-27.3	-51.3

Price Trend



FY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십억원)	147	158	171	178
영업이익(십억원)	12	13	15	17
순이익(십억원)	11	12	13	13
EPS(원)	761	846	951	951
BPS(원)	2,748	3,191	3,700	4,403
PER(배)	14.2	11.3	10.6	11.1
PBR(배)	3.9	3.0	2.7	2.4
ROE(%)	29.3	27.7	26.9	22.9
배당수익률(%)	3.1	4.0	4.4	4.7
EV/EBITDA(배)	8.7	7.6	6.3	5.7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금융]

설용진 2122-9159 s.dragon@imfnsec.com

I. 채권추심업계 1위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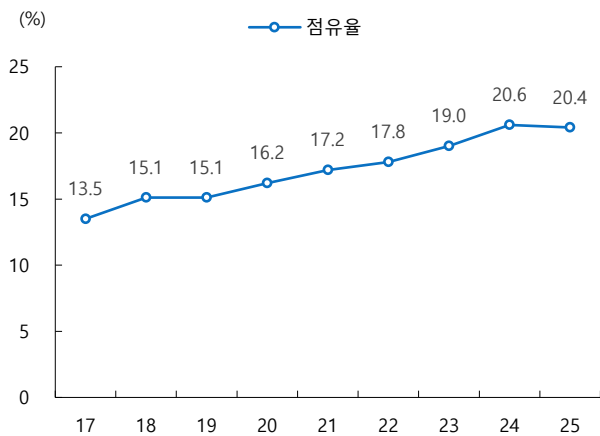
1. GA와 유사한 인력 기반의 플랫폼형 회사

통상적으로 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이러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연체채권의 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회사로 1)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조사 등 신용조사 업무 및 2) 법적 절차에 따른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등 채권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등 업무를 영위한다. 이러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30억원), 인력/물적 시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일정 규모의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는 이러한 채권추심업계 내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채권추심 수익 기준으로 2025년 시장 전체 대비 약 20.4%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영업수익 내 90%가 채권추심으로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수 수수료는 회수 금액의 약 2~30% 수준으로 파악된다(회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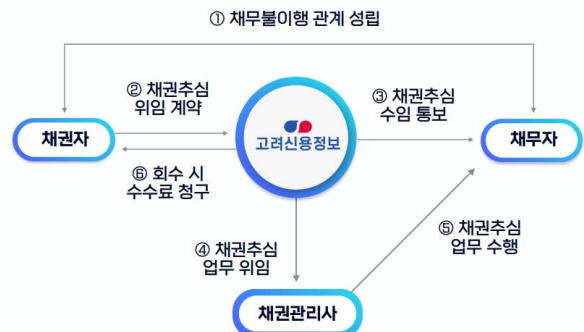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동사는 1)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운용수익을 확보하는 통상적인 금융회사보다는 2) GA와 유사하게 보유 중인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플랫폼형 회사에 해당한다. GA와 마찬가지로 수취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인력들에게 배분하는 사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영업비용의 상당 부분이 성과와 연동되는 변동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경쟁력의 핵심은 적극적인 인력 기반 확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그림1. 채권추심 - 고려신용정보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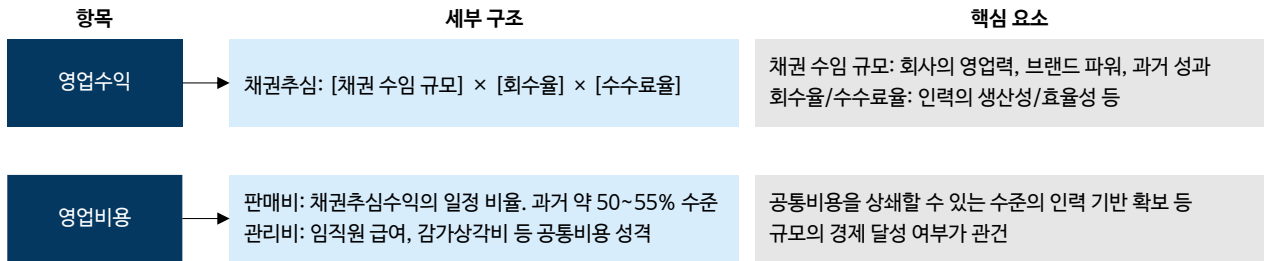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채권추심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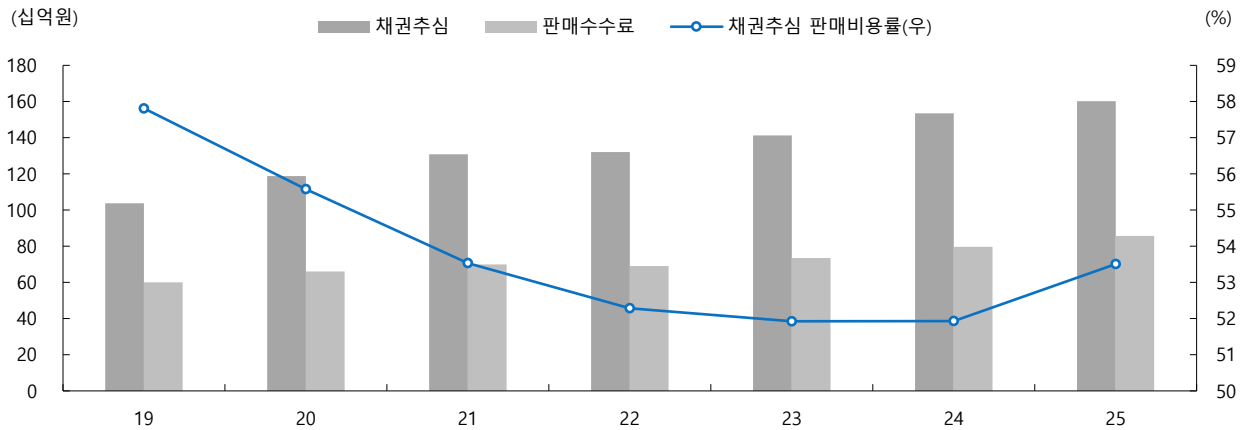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채권추심업 - 핵심 수익구조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고려신용정보 - 채권추심 수익 및 판매수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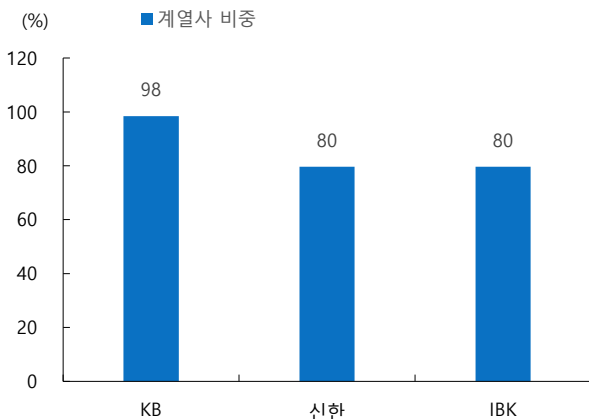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2. 인력과 영업 간 선순환 구조 지속

GA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핵심 이익 기반은 인력이다. 동사의 경우 1) 업계 1위 사업자로써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2) 전 영역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3) 전국에 걸쳐 분포된 지점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다량의 채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신용정보회사 대비 인력 확보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정적인 급여를 수취하지 않는 채권관리사 특성상 브랜드 파워 등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체 채권을 수입할 수 있는 동사의 매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확보된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영업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력과 영업 간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사의 경우 민사, 상사, 금융, 통신, AMC 등 전 채권 영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채권추심 매출 중 약 절반 정도가 민/상사에서 발생하는 등 민/상사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요 금융회사들이 자회사로 신용정보회사를 보유함에 따라 추심 물량 대부분을 자체 소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수입하는 금융채권은 상대적으로 회수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상사채권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 1) 채권관리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2) 수익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인력 기반과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의 강점 바탕으로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업계 전체를 크게 상회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5. 금융사 계열 신용정보회사 - 계열사 물량 비중



자료: 각사,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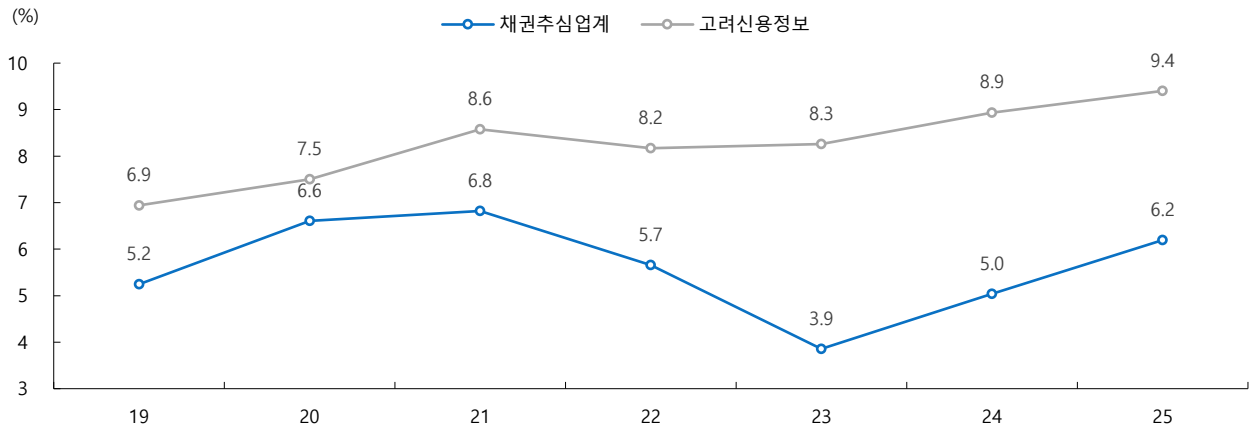
주: 영업수익 중 계열사 관련 수수료 비중으로 산출

그림6. 주요 취급 채권 영역

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금융채권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전략채권	휴대폰, 전화, 인터넷 사용 관련 통신요금 등
기타	기타 생활채권 채권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고려신용정보 - 업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신용정보협회, iM증권 리서치본부

II. 물량 누적 이후 회수 개선 사이클 기대

1. 경기 부진 후 회복 국면에서 부각될 이익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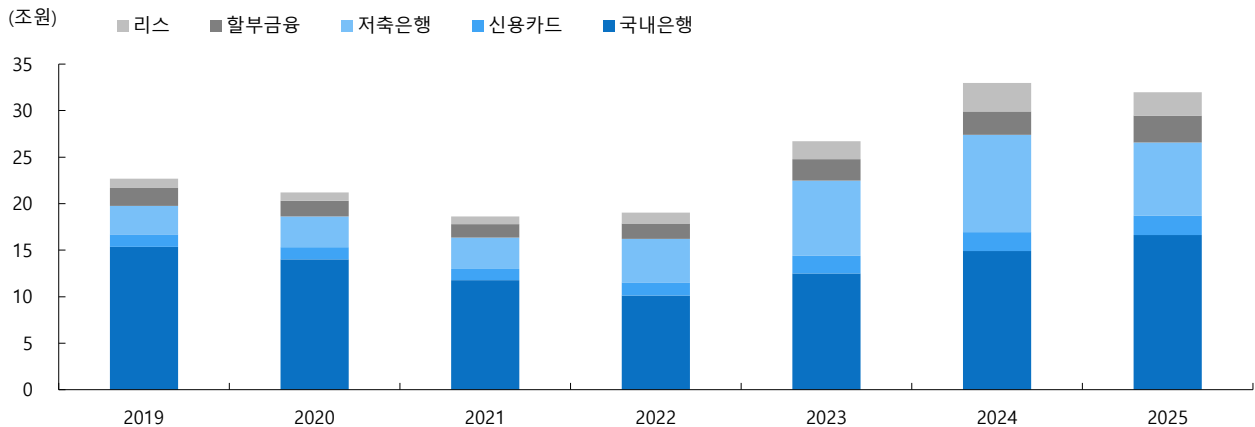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고려신용정보는 경기가 부진할 때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수혜를 보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단순히 경기 부진에 따른 부실 채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2가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경기 부진 시 NPL 등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동사의 전체적인 수입 물량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부실 채권의 회수도 어려워진다. 동사의 수익구조가 결국 수입받은 채권의 회수 시점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기 부진 국면에서는 늘어난 물량이 온전하게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연체 발생 이후 추심까지 넘어오는 시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추심 절차를 밟기 보다는 자체 관리 등을 거친 후 추심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기 부진 및 연체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일정 시차를 두고 동사에게 추심 물량이 넘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체 수입에서 민사/상사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통장/전화 사용 등과 연관이 존재하는 금융채권, 통신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환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위치한 민사/상사채권 특성을 감안했을 때 회수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더욱 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송 등 절차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이 회수를 거쳐 수익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8. 주요 금융회사 NPL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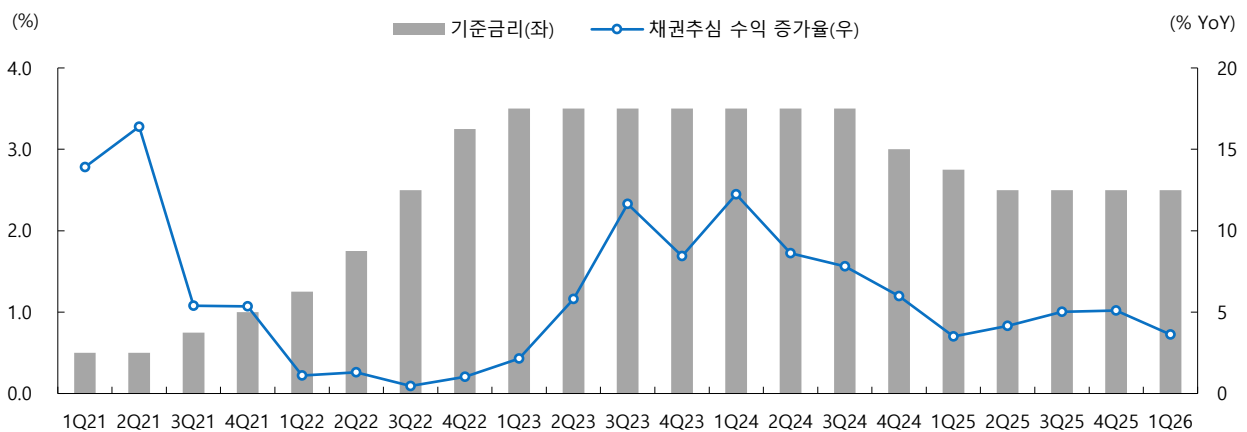


자료: FISIS, iM증권 리서치본부

실제로 과거 동사의 채권추심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금리가 상승하며 연체 등이 확대되기 시작한 2022년이 아닌 일정 수준 시간이 경과한 2023년~2024년 중 수익 성장률이 확대되었다. 상기 언급한 요인 등 영향으로 경기 부진 추세가 나타난 이후 일정 수준의 시차를 거쳐 동사의 수익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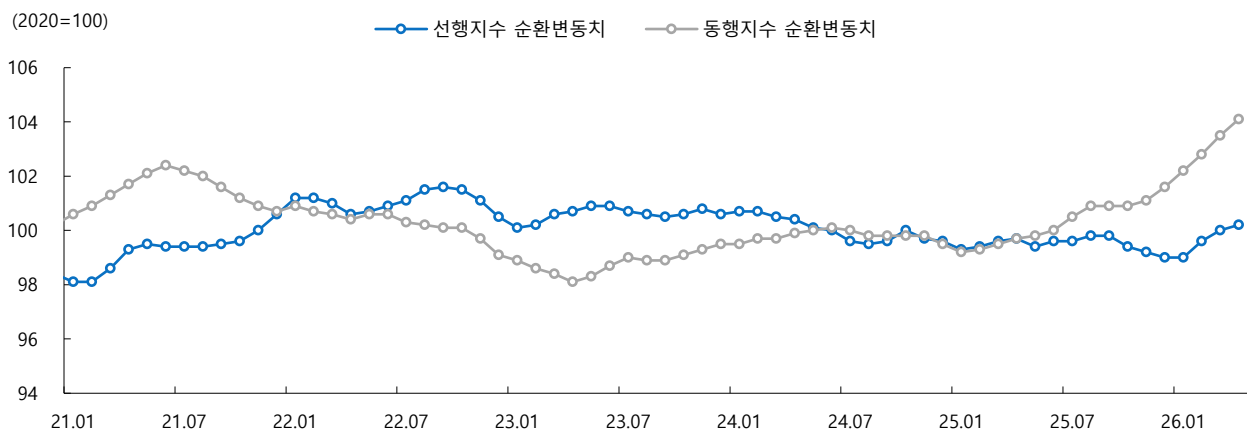
이러한 요인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으로 동사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1) 경기 부진 추세가 심화되어 수입받은 부실채권 규모가 누적된 상황에서 2) 경기 회복 기조가 나타나며 회수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매크로 환경은 이러한 양상에 다소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 지속된 고금리 기조 속에서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2) 반도체 등 중심으로 GDP 성장률 등이 상승하는 등 향후 파급효과에 기반한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경기 회복 기조가 나타날 경우 동사는 기 확보된 부실채권 수입 물량에 회수율 개선에 따른 수익 확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9. 고려신용정보 - 기준금리와 채권추심 수익 성장률 추이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경기지수 - 동행지수가 선행지수를 후행하여 반영될 경우 경기 회복 기대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III.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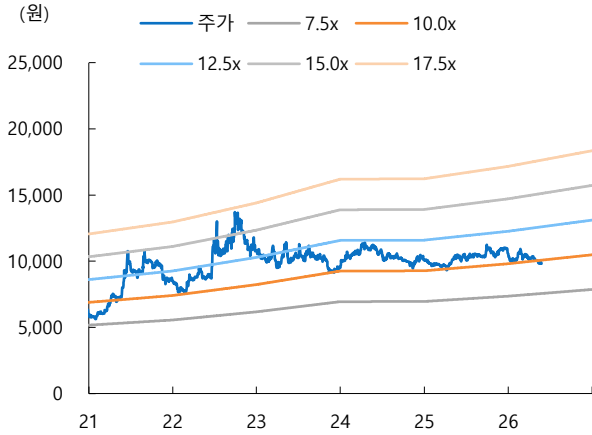
1. 안정적 이익구조 대비 낮아진 밸류에이션

고려신용정보의 경우 1) 수익과 연동되는 비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2) 업계 내 높은 점유율과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로 업종 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1) 경기 부진 시 물량 확대에 기반한 실적 방어를 기대할 수 있으며 2) 경기 회복 시 회수율 개선에 따른 수익 확대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방어주 측면의 매력이 매우 높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26E 실적 기준으로 PER 9.7배, PBR 2.0배로 과거 5년 평균 PER 11.9배, PBR 3.1배 대비 크게 낮아진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동사의 주가는 22년~23년 중 견조한 흐름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2년부터 금리 상승 등과 함께 경기가 둔화되며 NPL이 늘어남에 따라 동사의 수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기인한다. 전반적인 수익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수율 이슈 및 시차 등 영향으로 실제 Top line 증가 수준이 기대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주가가 다소 부진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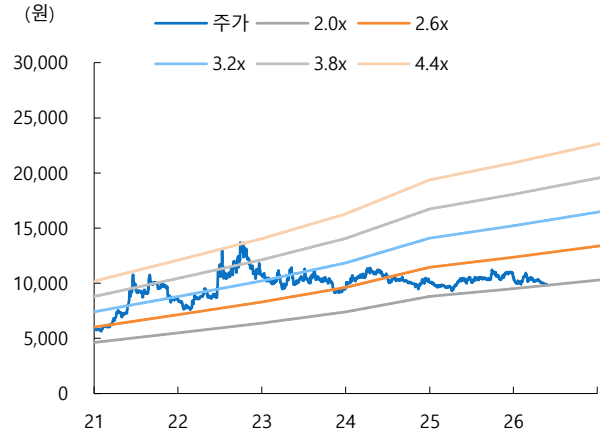
다만 전반적인 추심 시장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민사 기타집행의 경우 채권/재산권 강제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장, 급여 압류 등 채권 추심 절차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추심 시장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표라고 판단한다. 기타집행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백만건 이상의 접수/처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6년 4월 누계 기준으로는 약 41만건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2% 상승하는 등 견조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체적인 시장 백그라운드가 양호한 가운데 경제성장 회복 등을 바탕으로 회수율 개선 등이 나타날 경우 전체적인 Top line과 이익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5년 평균 수준 PER, PBR 수준으로 멀티플 회복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동사의 주가는 현재 대비 약 20~50% 수준의 Upside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11. PER Band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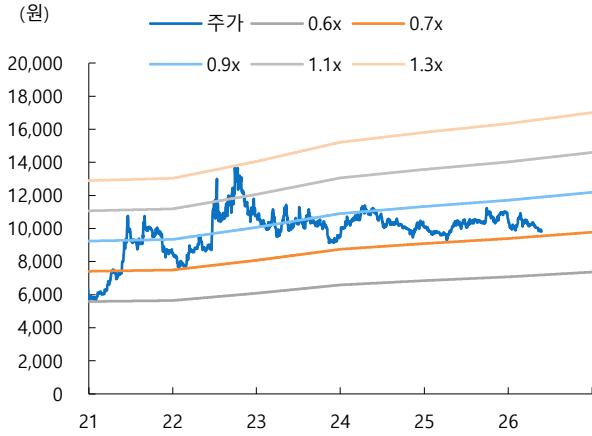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PBR Band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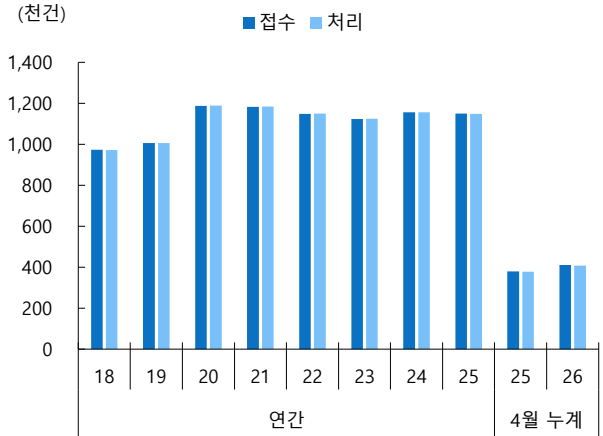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PSR Band 추이



자료: FnGuid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민사 - 기타집행 건수 추이



자료: 법원, iM증권 리서치본부

IV. 리스크 요인: 규제 리스크와 경쟁 심화

1. 높아진 규제 리스크와 경쟁 심화. 다만 제한적인 영향 전망

한편 동사 업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만한 리스크로는 1) 규제 심화와 2) 신규 진입자 확대 등 요인을 제시한다. 먼저 추심과 관련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24년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도입에 따라 연락 횟수 제한 등 이전보다 추심 난이도가 상승했으며 새출발기금 등 정책적인 채무조정 확대에 따라 채권 추심 대신 채무조정 절차로 들어가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약탈적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상록수 등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채권회수 시장에 있어 부정적인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1) 장기연체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 자체가 어려운 채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요인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또한 동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사/상사채권 매출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등 민/상사채권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등이 금융채권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규제임을 감안했을 때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보유한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체적인 압박이 커지는 점은 부담스러우나 업종 내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리스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경쟁 심화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전망이다. 채권추심업 자체는 진출 등이 까다로워 신규 플레이어가 거의 없으며 동사가 압도적인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경쟁력 측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로스쿨 등 영향으로 변호사 공급이 확대되었고 법률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로 진출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등 업계 외부 요인에 의한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추심회사는 소송대리 등이 불가한 반면 변호사의 경우 법적 절차 전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법률대리가 불가한 대신 채무자의 소재나 재산파악 변제 촉구 등 비법률적 추심 업무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인 고객층이 세분화되는 정도의 영향을 전망한다.

V. 실적 전망: 견조한 이익 흐름 지속 전망

1. 26E 영업수익 1,840억원(+3% YoY), 영업이익 176억원(+5% YoY) 전망

고려신용정보의 2026E 실적은 영업수익 1,840억원(+3.3% YoY), 영업이익 176억원(+5.3%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Top line에서는 채권추심이 1,669억원(+4.2% YoY)으로 견조한 흐름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수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며 비용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비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26E 영업이익률은 9.6%(+0.2%p YoY)로 견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흐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에도 견조한 이익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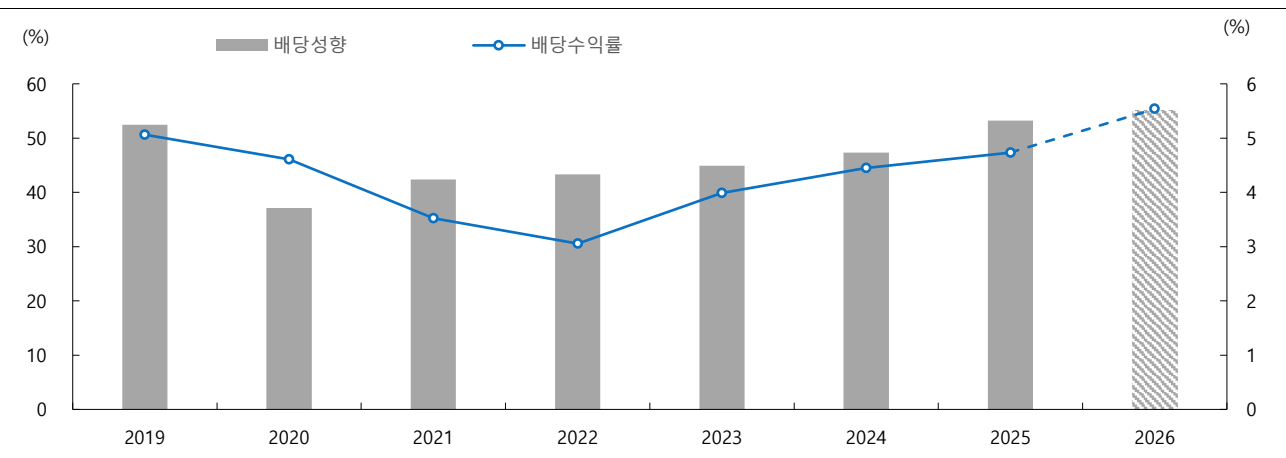
표1. 고려신용정보 - 실적 전망

(단위: 백만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3Q26E	4Q26E
영업수익	42,647	44,852	45,498	45,034	43,815	46,223	46,978	46,977
(% YoY 증가율)	2.7%	3.9%	4.9%	4.1%	2.7%	3.1%	3.3%	4.3%
채권추심	38,253	40,341	40,846	40,829	39,635	41,954	42,684	42,666
신용조사	2,676	2,755	2,782	2,570	2,646	2,660	2,673	2,686
민원대행	872	856	808	714	552	553	554	555
기타매출	37	69	227	5	28	17	22	20
대부업 이자수익	809	831	835	917	954	1,040	1,045	1,050
판매관리비	39,321	40,668	40,965	40,335	40,130	41,766	42,210	42,262
판매수수료	20,006	21,898	22,297	21,556	20,329	21,816	22,196	22,186
영업이익	3,325	4,183	4,533	4,699	3,685	4,458	4,768	4,714
영업이익률	7.8%	9.3%	10.0%	10.4%	8.4%	9.6%	10.2%	10.0%
세전이익	3,423	4,298	4,702	4,868	3,906	4,608	4,918	4,864
당기순이익	2,744	3,405	3,719	3,393	2,658	3,640	3,886	3,843
순이익률	6.4%	7.6%	8.2%	7.5%	6.1%	7.9%	8.3%	8.2%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주주환원 측면의 매력도 높다고 판단한다. 동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40% 이상의 배당성향, 20% 이상의 ROE 목표를 제시했는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위해 40%를 기재했으며 실제 배당 성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동사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당성향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6년 예상 배당성향 55% 적용 시 약 540원의 DPS를 전망한다. 배당수익률은 전일 증가 기준 약 5.7% 수준에 달한다. 대내외 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구조와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방어주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15.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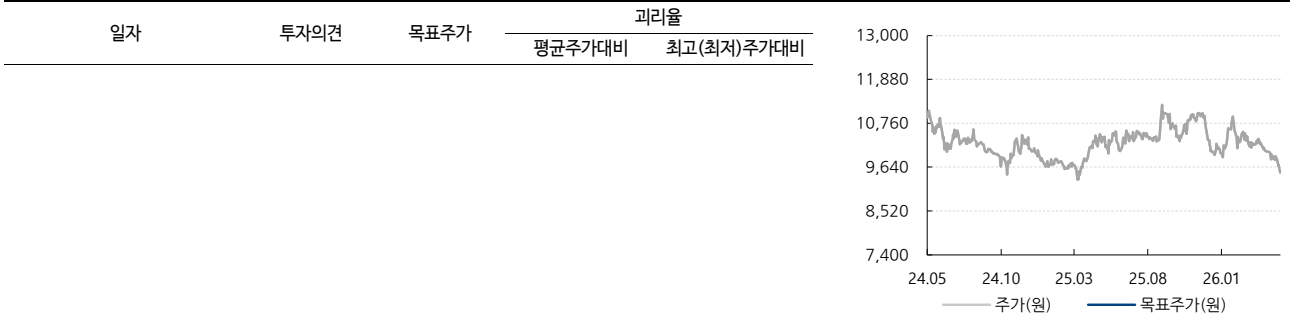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십억원, %)	2024	2025	2026E	2027E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0	20	15	17	영업수익	171	178	184	191
기타유동금융자산	7	13	12	13	(% YoY 증가율)	8%	4%	3%	4%
매출채권/기타 유동채권	10	12	13	14	채권추심	153	160	167	174
대출채권	29	32	38	39	신용조사	11	11	11	11
유형자산	15	19	20	21	만원대행	4	3	2	2
무형자산	4	4	4	4	기타매출	0	0	0	0
기타자산	13	14	18	20	대부업 이자수익	3	3	4	4
자산총계	97	114	121	127	판매관리비	156	161	166	173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3	15	16	16	급여/성과	42	40	41	43
금융리스부채	11	16	15	16	감가상각비	7	7	7	7
사채	10	10	11	11	판매수수료	80	86	87	91
장기차입금	0	0	0	0	기타판매관리비	28	28	32	33
전환사채	0	0	0	0	판매비율	91.1%	90.6%	90.4%	90.4%
기타부채	10	11	11	11	영업이익	15	17	18	18
부채총계	44	51	53	54	영업이익률	9%	9%	10%	10%
지배주주지분	53	63	68	73	EBITDA	22	24	24	25
자본금	7	7	7	7	영업외손익	1	1	1	1
자본잉여금	2	5	5	5	세전이익	16	17	18	19
기타자본	-0	-0	-0	-0	법인세비용	3	4	4	4
이익잉여금	44	51	56	61	법인세율	18%	23%	23%	21%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당기순이익	13	13	14	15
자본총계	53	63	68	73	순이익률	8%	7%	8%	8%

주요투자지표(1)					주요투자지표(2)				
(%)	2024	2025	2026E	2027E	(%, 원)	2024	2025	2026E	2027E
수익성지표(%)					건전성지표(%)				
ROE	26.9	22.9	21.4	21.2	부채비율	84.0	81.5	77.5	73.4
ROA	14.0	12.5	11.9	12.1	유동비율	176.8	189.8	167.4	171.4
영업이익률	8.9	9.4	9.6	9.6	주당지표(원)				
EBITDA이익률	13.0	13.3	13.3	13.1	EPS	950.8	940.1	981.7	1,049.1
순이익률	7.7	7.4	7.6	7.8	BPS	3,800	4,407	4,758	5,142
성장성 지표(%)					SPS	12,305	12,621	12,877	13,400
영업수익	8.3	3.9	3.3	4.1	DPS	450	500	540	580
영업이익	17.1	9.3	5.3	4.3	Valuation(배)				
순이익	12.5	0.2	5.8	6.9	PER	10.6	11.2	9.7	9.1
자산	6.8	17.3	5.6	5.6	PBR	2.7	2.4	2.0	1.8
부채	-2.4	15.4	2.7	2.5	PSR	0.8	0.8	0.7	0.7
자본	16.0	19.0	8.0	8.1	EV/EBITDA	6.3	6.2	5.7	5.5

자료: 고려신용정보, iM증권 리서치본부

고려신용정보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8.2%	11.8%	-